■설 연휴에도 스포츠는 계속 된다

박지성 시즌 2호골 도전

25일 새벽 2시

자칫 지루하게 보내기 쉬운 설연휴. 24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스포츠는 쉬지 않고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브라운관을 수놓을 스포츠 열전에 빠져보자.

'돌아온 천하장사' 이태현 관심

민속명절의 단골스포츠 씨름은 26일과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설날장사대회 한마당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종합격투기로 갔다가 모래판에 다시 돌아온 천하장사 이태현(구 미시체육회)이 출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들소' 김경수(시흥시체육회)도 복귀전을 펼쳐 씨름팬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선물이 될 전망이다.

프로농구는 연휴기간 하루도 쉬지않고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이고 프로배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화끈한 라이벌전을 마련해 놓았다.

이밖에 해외에서 열리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종합격투기 등은 TV로 스포츠팬을 찾아간다.

◇반갑다! 이태현, 김경수=1990년대 말 씨름판을 호령했던 천하장사 이태현과 들소 김경수가 복귀전을 치른다.

작년 12월 경남 남해장사대회에서 함께 컴백을 선언한 이태현과 김경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체력과 기술을 가다듬어 왔다.

90.1kg 이상이 출전하는 백호.청룡 통합장사전은 27일 오후 2시10분 열리지만 이들은 25일 열리는 예선전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

본선에는 청룡급 최강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새로운 천하장사 윤정수(수원시청)를 비롯해 장성복 (동작구청) 등이 버티고 있어 이태현과 김경수가 어느정도 옛 실력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

◇프로농구=중상위권 팀 간 치열한 순위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 동안에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24일부터 나흘간 모두 10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경기는 선두 원주 동부와 중위권 안양 KT&G의 맞대결.

동부는 설 전날인 25일 열릴 원정경기에서 이겨 3연승으로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각오고 KT&G는 동부를 잡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6일에는 국내 최장신 하승진의 위력이 갈수록 더해지는 전주 KCC와 2위 울산 모비스의 대결도 관심을 끈다.

현대-삼성 자존심 싸움 볼 만

◇프로배구=4라운드에 접어든 프로배구 V 리그가 설 연휴 화끈한 라이벌전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팬들이 손에 꼽는 빅매치는 26일과 27일 잇달아 벌어질 삼성화재-현대캐피탈, LIG 손해보험-대한항공(이상 오후 2시) 경기다.

정규리그 1위를 향해 고공 비행 중인 현대캐피탈과 조직력의 배구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화재의 자존심 싸움은 설 당일 배구팬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전망.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2승1패로 앞선 현대캐피탈은 이번에도 삼성화재를 잡으면 사실상 리그 1위를 확정한다

◇ 해외축구, 골프=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는 박지성(28)은 25일 오전 2시15분(이하 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와 FA컵 4라운드(32강) 홈 경기 출격을 벼르고 있다.

박지성은 최근 소속팀이 치른 세 경기 연속 결장했다. 이는 선수 로테이션 측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힘을 비축한 박지성이 이번 토트넘전에 출전할 가능성은 크다. 맨유는 28일 오전 4시45분 김두현(27)의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과 정규리그 원정경기도 예정돼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태극전사 간 맞대결도 기대된다. MBC ESPN에서 볼 수 있다. 부상을 털고 지난 19일 캉과 프랑스 정규리그 원정경기를 통해 새해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은 박주영(24·AS 모나코)은 26일 오전 니스와 컵대회 32강 홈 경기에서 시즌 3호골에 도전한다.

2년만에 권투 신인왕전도

◇격투기·복싱='얼음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3·러시아)가 미국 종합격투기대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표도르는 25일(한국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혼다센터에서 열릴 격투기 어플릭션 대회에서 안드레이 알로프스키(30·벨로루시)와 격돌한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6일부터 1주 동안 2009년 신년맞이 권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설인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대학교에서 한국챔피언 타이틀 토너먼트 경기가, 27일에는 종로구민회관에서 '코리안 콘텐더대회' 페더급 16강전이 펼쳐진다. 이 대회 우승자는 '꿈의 무대' 세계복싱평의회(WBC) 세계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제35회 전국신인왕전이 개최된다. 신인왕전이 열리기는 2007년 2월 이후 2년여만이다. /연합뉴스

"생존경쟁 돌입…조금 떨리네요"

KIA 타이거즈 야수조 미야자키 훈련캠프 도착

KIA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야수조가 23일 일본 미야자키에 캠프를 마련했다.

이날 일본에 도착한 선수는 루키 안치홍과 손정훈을 포함해 이종범, 최희섭, 이용규 등 야수 16명. 주전경쟁 1차 관문을 통과해 40박41일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되는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출국 전날인 22일 안치홍과 손정훈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오후를 분주하게 보냈다. 프로 첫 전지훈련을 위한 짐을 챙기느라 훈련때보다 더 구슬땀을 흘렸다.

선수들에게 허락된 화물은 2개. 방망이 글러브 등 운동장비 한 짐을 제외하고 남은 가방 하나가 문제였다.

두 루키는 선배들에게 짐 꾸리는 노하우를 물으며 고심하다 결국 '운동'을 키워드로 삼았다. 치열한 주전 경쟁이 전개될 전지훈련을 대비해 운동복만 잔뜩 챙겼다.

안치홍은 "운동만 할 생각에 유니폼과 옷만 챙겼다"며 "막상 전지훈련이 시작되니 뭔가 떨리는 느낌이고 목표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별한 짐도 하나 있다. 운동하면서 고쳐야 할 점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적어놓은 수첩이다.

손정훈의 가방에도 역시 운동복이 가득하다. "뭘 챙겨야 할지 몰라 걱정했는데 짐을 챙기다 보니 훈련할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생일 선물로 받은 PSP가 그나마 여가활동을 위한 유일한 물건이다." 179㎝, 69kg 마른 체격인 손정훈은 1군진입과 함께 '몸집 불리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약도 챙겼다.

신인 티를 벗은 2년차 나지완과 김선빈은 이들에 비해 한결 여유가 생겼다.

치열한 내야 경쟁을 펼쳐야 하는 김선빈은 "지난해 전지훈련 준비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조금 편했졌다"면서도 "주전 경쟁이 뜨거워진 만큼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썼던 훈련일지를 가장 먼저 챙긴 김선빈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전지훈련 일지를 써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거포' 나지완은 긴장감대신 설레임으로 두 번째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비해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나지완은 지난해 불투명하던 자신의 입지와 달리 올 한해 우타 거포로 해야할 일이 있는 만큼 감회가 새롭다고 말한다. 올 겨울 5kg가량 몸무게를 줄인 나지완은 전지훈련에서 5kg를 더 감량할 계획이다.

해외훈련에 이력이 붙은 이용규과 이현곤은 일찌감치 짐을 꾸리고 전지훈련을 기다렸다. 다음달 15일 WBC 대표팀에 합류해야 하는 이용규는 낡은 유니폼으로 가방을 가득 채웠다. 전지훈련 도중 대표팀에 합류해 새로 대표팀 유니폼과 물품을 받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버려도 되는 낡은 유니폼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매번 훈련에 동행하던 친숙한 짐이 하나 빠졌다. 만화 캐릭터 모양의 커다란 자명 시계. 아침에 늦지 않으려고 훈련 갈 때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자명종 시계를 얼마 전에 잊어버렸다.

8년차에 접어드는 이현곤은 출발 전날 병원까지 다녀왔다. 비상약까지 챙기는 여유를 보인 것이다. 미야자키가 시골이라 사복도 별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현곤은 전지훈련의 필수품 노트북은 진작 챙겨두었다.

"미야자키가 한적한 시골이라 쉬는 날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노트북에 영화를 잔뜩 다운 받아두었다. 영화를 보면서 전지훈련의 고단함을 잊을 계획이다."

각기 다른 표정 속 '주전확보'라는 같은 목표를 놓고 미야자키에 짐을 푼 KIA 선수들의 여정은 오는 3월4일까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에서 설 맞는 박태환 '훈련 또 훈련' 올해 7월 로마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3일 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USC)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태환. /연합뉴스

"이겨서 미안해 !"

美 여고농구 100-0 '엽기 스코어' 이긴 학교 "명예롭지 못해" 사과

미국 여고농구 경기에서 100-0이라는 엽기적인 스코어가 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14일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여고 농구 경기에서 코베넌트 스쿨이 댈러스 아카데미를 100-0으로 꺾었다. 1쿼터 35-0, 2쿼터 59-0, 3쿼터 88-0으로 앞선 끝에 결국 100-0으로 경기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이 경기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코베넌트 스쿨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카일 퀼 교장은 사과문을 통해 "부끄럽고 당황스럽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했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댈러스 아카데미에 용서를 구했고 텍사스 지역학교 연합회에도 이 명예롭지 못한 승리와 패배의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댈러스 아카데미는 20명의 여학생 가운데 8명을 뽑아 여자농구팀을 구성했으며 특히 이 학교는 집중력 부족이나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학교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제레미 시벨로 체육 교사는 댈러스 모닝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기대한 적도 없다"라며 "다만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70대0, 80대0이 됐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